

박인비 초반부터 거침없는 버디쇼 ... 여유있게 금메달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코스에서 열린 2016 리우하계올림픽 여자골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박인비(가운데)가 시상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6년만에 금 ... 올림픽 골프사 새로 썼다

리디아고 은메달... 양희영 공동 4위, 전인지 공동 13위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116년 만에 올림픽에서 열린 여자골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박인비는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골프 코스(파71·6245야드)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골프 여자부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1900년 파리 대회 이후 116년 만에 다시 열린 여자골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인비의 금메달로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금메달 9개째를 획득했다.

지난해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는 남녀를 통틀어 세계 골프 사상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올림픽 금

메달을 모두 이뤄낸 '골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이뤘다.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11언더파 273타로 은메달을, 평산산(중국)이 10언더파 274타로 동메달을 따냈다. 양희영(27·PNS창호)이 9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4위에 올랐고 전인지(22·하이트진)는 5언더파 279타로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세영(23·미래에셋)은 1언더파 283타, 공동 25위를 기록했다.

마지막 날 경기는 예상과 달리 싱거운 승부였다.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였던 리디아 고, 저리나 필러(미국)에게 2타 앞서 있던 박인비는 초반부터 거침없이 타수를 줄여나가며 승기를 잡았다.

먼저 리디아 고가 2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왼쪽 모래밭으로 보내면서 일이 꼬였다. 리디아 고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받아 이홀에서 한 타를 잃었다.

3타 차로 벌어진 상황에서 박인비는 3번부터 5번 홀까지 3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6타 차로 달아났다. 특히 리디아 고는 이날 3~5m 내외의 퍼트가 계속 홀을 외면하면서 타수를 줄일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박인비를 위협한 것은 동메달을 따낸 평산산이었다. 평산산은 9번부터 11번 홀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박인비를 3타 차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평산산이 13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고 박인비는 15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5타 차가 되면서 박인비의 우승이 사실상 확정됐다.

박인비는 "사실 나도 이번 대회 성적을 장담할 수 없었다"며 "다만 한계에 도전한다는 올림픽 정신에 걸맞게 겸허한 자세로 경기에 나선 것이 좋은 결과로 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인비, 상금 없어도 '돈방석'

골프협 상금 3억·정부 포상금 6000만원·연금 월 100만원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열린 골프에는 상금이 걸려 있지 않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 이후 112년 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에 돌아온 골프 종목에 특히 남자 톱 랭커들이 대거 불참한 이유가 '상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21일 끝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한 박인비(28·KB금융그룹)에게는 웬만한 메이저 대회 상금에 버금가는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한골프협회가 이번 대회 금메달 포상금으로 내건 3억원이 박인비 차지가 됐다.

여기에 정부 포상금 6000만원을 받게 되므로 합계 3억6000만원이 박인비에게 돌아간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연금이 월 100만원씩 주어진다. 이 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경우 6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인비가 이를 일시불로 받는 것을 택하면 리우올림픽 금메달로 한꺼번에 총 4억27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박인비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메이저 대회인 2015년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상금 4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억2000만원)에 1억원 정도 모자라는 액수다. 하지만 박인비는 이번 금메달로 세계 골프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모두 달성하는 신기원을 이뤘다. /연합뉴스

손연재 '아름다운 4위'

리듬체조 아쉽게 메달 놓쳐

손연재(22·연세대)는 마지막 리본 연기를 마쳤을 때 메달이 물 건너갔음을 직감했다.

손연재는 마중 나온 엘레나 리프코도바 코치에게 종중결음을 차듯 달려가 그 품에 꼭 안겼다. 마냥 울고 싶을 때 멀리서 보이는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딸의 모습과 같았다.

손연재는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4종목 합계 72.89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3위인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73.583점)와 점수 차는 0.685점이었다.

손연재는 리자트디노바에게 0.318점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리본 종목 연기에 들어갔다. 완벽에 완벽을 기해도 메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리우 특유의 습한 날씨 탓에 녹록해진 리본은 자꾸만 몸에 감겼다. 손연재가 리본에서 받은 점수는 18.116점. 4종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손연재는 포디엄에서 걸어 나올 때 필생의 목표였던 올림픽 메달 꿈이 물거품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연재는 이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다. 전날 예선을 5위로 통과한 뒤 "올림픽을 준비하며 성격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토로했다. 그는 "올림픽 전 준비하기까지는 메달을 안 따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까지 했다.

손연재는 자신의 다음 순서인 리자트디노바가 동메달을 확정하는 리본 연기를 끝내자 아찔하는 박수를 보냈다. 4위가 결정된 손연재는 그러나 대기석에서 잠고 잠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손연재는 올 내내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연기했다. 리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서 원없이 기량을 펼쳤다. 설사 리본에서 완벽한 연기를 했더라도 리자트디노바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았다.

손연재는 이미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할 때



손연재가 2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4위로 경기를 마친 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울고 있다. /연합뉴스

에도 발목 부상으로 고생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의 발목 부상은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다. 매일 연습 뒤 진통제를 뿌려야 했다. 손연재는 뱃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도 한발을 축으로 삼아 360도를 도는 포에테 피봇의 비중을 올 시즌 어느 때보다 늘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내며 '인간 손연재'가 아닌 '선수 손연재'로 살아온 시간을 결국에는 보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손연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손연재는 충분히 잘했다. 리듬체조의 변방인 한국에서 태어나 이제 겨우 러시아에서 배운 시간이 6년을 넘는 그가 메달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

손연재는 후회 없는 연기를 펼쳤다.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 자격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연합뉴스

'IOC 선수위원' 당선 유승민 파격 대우

28일만에 선수촌 떠나 호텔 투숙

투숙비 하루 100만원 IOC 부담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이 21일 오전 올림픽 선수촌을 떠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돼 예우가 격상되면서 호텔로 옮겼다. 지난달 24일 선수촌에 들어온 지 28일 만이다. 하루 투숙비 100만 원을 넘는 호텔 비용은 IOC가 100% 부담한다.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21일 저녁에는 IOC 위원 투표



로 선수위원을 공인받았다. 유승민은 '깜짝 당선'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듯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유승민은 IOC 선수위원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우선은 서투른 영어 공부에 주력하기로 했다. 초심을 잊지 않고 IOC 선수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서 인정받겠다는 포부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4176호 (2016-08-11 ~ 2017-08-10)

메리츠자산운용이 새롭게 출시하는 '메리츠베트남펀드'의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펀드 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강연자
서울(여의도)	8월 22일 (월) 오후 4시~6시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존 리 대표 및 운용팀
서울(강남)	8월 30일 (화) 오후 4시~6시	매한기념관 3층 (강당)	
광주	9월 1일 (목) 오후 4시~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213호)	

펀드 가입기간 : 9월 5일 ~ 9월 9일
펀드 설정일 : 9월 12일
펀드상품 관련 문의사항은 1588-3400, 설명회 관련 문의사항은 02-6320-3001~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베트남펀드 관련 상세설명은 메리츠자산운용 홈페이지(www.meritzam.com)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MERITZ 메리츠자산운용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외화표시 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